

# 진흥회게시판

## '96한국방일산업 기술교류촉진 미션

WTO체제 출범이후 양국간의 기술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가운데 한일간의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기술교류 미션을 한일경제협회가 사업대행기관으로 오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동경지역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현지활동사항으로는 중견부품공장견학, 세미나, 전시회 참관 개별상담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원사항으로는 공장견학차 알선, 교통편제공, 통역지원, 체제비지원, 기타 제한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 □ 신청문의 및 접수처

(사)한일경제협회 조사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한국무역회관  
705호  
Tel : 551-1541/9

## 159개 유망선진기술중기 선정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43개 전자·전기업체를 포함, 총1백59개 중소기업을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자정, 집중 육성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선 앞으로 3년간 기술전문기관의 기술지도와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비롯하여 산업기능 요원과 산업연수생의 우선배정 등 기술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특히 이번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유망중소기업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유망선진기술기업이력카드」를 통해 지원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지정업체 선정기준은 신청업체 총 263개 중소기업 중 매출액의 2% 이상을 기술개발비로 투자하고 기술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업체 등으로 뒀다.

43개 전자·전기분야 지정업체는 다음과 같다.

- △세원전자(홍성범) △화덕산업(김영덕) △대홍전자엔지니어링(박승길) △선일전기(임병일)
- △화신(김인철) △한밭에너지(박인성) △우리기술(김덕우) △영성산업(김기진) △케이맥(유홍렬)
- △키트론(박종국) △코러스레이저(문현덕) △아세아전기공업(김봉현) △상아프론테크(이경호)
- △마이더스시스템스(황인현) △광원전자(고광수) △신성정공(조상원) △공영종합시스템(최용화)
- △삼흥중전기공업(조형기) △케이코전자(홍기룡) △닥터리(이상용) △서울광학산업(이지용)
- △선진전자기술(김정우) △다림시스템(김영대) △썬코리아전자(신규섭) △신보산업전자(장봉출)
- △현성전자(백남일) △코리아실렉트웨어(박원민) △신성전자(한성건) △KMW(김덕용)
- △조양전기공업(김기수) △현대정밀(이영호) △일진전자통신(이정행)
- △신한국반도체(김영래) △씨티아이반도체(김훈) △케이티전기(구자영) △한국씨피유(김일광)
- △효성트랜스공업(장유현) △세광산업(안창호) △홍진(주홍점) △삼도기업(박삼동)
- △유양산전(임근영) △홍우산업공사(이기중) △유아전자(박현승)

## CALS 표준화 기본방향 확정

통상산업부는 최근 각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앞다퉀 도입을 추진중인 광속거래(CALS)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조기에 이를 기업에 정착시키기 위해 CALS표준의 개발방향과 적용 우선순위 등에 대한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CALS기본체계는 상위표준으로 CALS 디지털정보교환 총괄표준과 하위표준으로 △제품모델 △데이터파일 포맷 △상거래 문서교환(EDI) △가이드 및 절차표준 등 4개 표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발전략 및 적용원칙에 있어선 현재의

# 진흥회게시판

국제표준을 1순위로 적용, 최우선으로 사용하되 국제표준이 제정 안된 부분은 2순위로 외국 국가표준을 사용하며 정부 부처의 개발표준은 3순위, 업계개발표준은 4순위로 각각 채택하도록 했다.

또한 기타부문의 표준에 대해서는 업계의 개발을 촉진·장려토록 했으며, 국가표준과 외국 국가표준은 산업표준심의회 산하 CALS표준전문위원회 심의 또는 검증절차를 거쳐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은 잠정 권고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필요성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CALS표준의 개발 우선순위 결정은 중요성과 시급성·용이성·파급효과·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 첨단기술 대한이전 탐색

산업기술정보원이 중국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중국에서 최근 개발된 첨단기술 610건의 내용을 수록한 목록을 입수해 국내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31일 기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입수된 기술 리스트에는 중국의 주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개발한 610건의 첨단기술들이 소개돼 있으며 중국측은 이들 기술을 외국기업에 직접 판매하거나 합작투자형식으로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중국측이 제시한 기술은 기계분야가 금속벨트 컨베이어 등 110건으로 가장 많고 섬유추진기 등 제어계측분야가 58건, 화재방지 PVC벨트 제품 등 화학분야가 57건 등이다.

또 합성다이아몬드 제조기술과 박막유리기술 등 재료분야가 42건, 시청각 교육시스템 컴퓨터 등 컴퓨터분야가 32건, 알루미늄 코팅기술 등 금속재료공학분야가 27건 등이며 이밖에 에너지, 환경보호, 자동화기술, 섬유, 항공 및 우주, 부식방지기술, 레이저 및 광학, 의료장비, 한방약품, 농약, 수의학 등 각종 산업분야의 기술들이 망라돼 있다.

(문의 : 기정원 북방정보개발부 962-611 교환 608)

□ 전자(12건)

1. High-Resolution Display Card with Vector Chinese Character
2. High Resolution Monochrome Display Tube
3. Powder DCEL Display Panel
4. Phase Change Optical Disks
5. The Substrate of Laser Optical Disc Master
6. XH-CDP CD Player
7. PCB Connectors
8. Magnetic Card Reader & Writer
9. SAW Resonator for Video Recorder and SAW Filter for Optical Communication
10. High Electric-Capacity Colloidal Electrolyte and Colloid Storage Battery
11. Liquid Crystal Display
12. Zinc Oxide Varistor

### 폐가전제품 재활용기금 조성추진

세탁기나 에어컨, TV 등 폐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20일 현행 폐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폐가전제품재활용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금은 전자산업진흥회 내에 이미 설치된 폐가전제품 회수처리사업단에서 운영해 폐가전제품 종합처리공장 및 우레탄 재활용공장 설립, 냉매회수장비 구입 및 보급, 대형폐기물 전용 광역집하장 조성 등에 사용된다.

통산부는 현행 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예치금제도는 반환되지 않은 예치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돼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가전제품의 내구연한이 10~15년인데도 다른 제품과 같이 전년

# 진흥회게시판

도 출고기준으로 예치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세계적으로 폐가전제품에 대해 예치금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도 전혀 없으며 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TV나 세탁기·에어컨·냉장고·탈수기·공기청정기 등은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대형 생활쓰레기로 분류돼 폐기할 경우 소비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한 뒤 배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폐기물 예치금제도와 중복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따라서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를 쓰레기 종량제로 단일화하고 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폐지해 기업들이 스스로 기금을 조성, 폐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러, GSP혜택 철폐품목에 신규포함

러시아 연방정부령 제887호로 지난 1일부터 의약품, 컴퓨터, 현금등록기, 집적회로 및 물품세 부과대

상품목에 대한 GSP혜택이 철폐됐다. 개도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이전에는 25%의 관세감면혜택이 주어졌다.

이와같이 GSP 혜택 철폐품목을 확대한 배경으로는, 정부측에서는 의약품, 컴퓨터 등의 제조 수출국가는 경제가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 평가돼 GSP 혜택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자국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 관세위원회의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러시아 의약품, 컴퓨터, 집적회로 등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극히 미미하나, 현금등록기의 경우 지난해 한국은 대러시아 최대 수출국으로서 전체 수입의 34%를 점유(280만달러)했다.

그러나 이 4개 품목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며, 이전의 수차례에 걸친 러시아의 GSP 혜택 철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러시아 수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GSP혜택 철폐품목

HS Code	품 목 명	비 고	현행관세율(MFN 관세)
847050000	현금등록기	신규품목	30%
8471	자동자료 처리기(컴퓨터)	"	5~10%
847330000	8471류의 부분품	"	5%
851710000	전화기	기존품목	25%
8519	카세트 플레이어 등	"	25%
8520	녹음기, 음성기록기 등	"	30%

한편 이번에 GSP혜택이 철폐된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은, 이미 이전에 개별 정부령으로 GSP혜택이 철폐된 것이 대부분이다.

## 중국북경대 최고경영자 연수참가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제간 산업협력증진 등 국제화 추진능력 배

양을 위해 국제연수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10월5일~10월15일까지 공단 중국사무소의 현지 지원하에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중국 북경대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내용은 변화하는 중국의 경제현황을 알 수 있는 경제법 조세 및 무역제도 등의 강의·중국기업, 대중투자기업 및 산업시찰과 문화시찰 등을 통해 중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체계있게 알 수 있도록 편성

